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짚풀, 4컷

2024. 05. 02 ~ 07. 30

짚풀생활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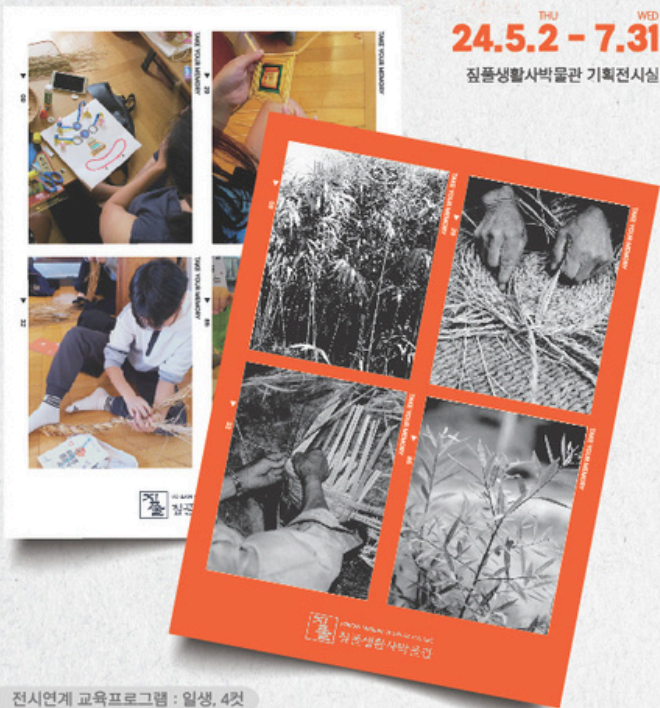
NMF 국립박물관연합재단

ICOM 世界博物館協會

짚풀, 4컷

THU WED
24.5.2 - 7.31

짚풀생활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 일생, 4컷

대 상 : 누구나(선착순 240명, 사전예약 필수)

일 정 : 2024.5.2 - 5.31

참가문의 : 02-743-8787 / www.jpul.com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ICOM

2024

MUSEUM WEEK

박물관 · 미술관 주간

www.유지업워크.kr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공식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1 **백물관·미술관 주간**



짚

발원 [외]

[본사]

북, 브라, 및 아프리카의 미상을 영감받은 유기적 모.
매의 난잡을 일어난 출가-것음.

풀

발원 [외]

[본사]

호본 시골을 통틀어 이르는 말.
죽은(사슴)이 아니라 풀기가 현저고, 대개 한 여름 자라고 죽는다.

출처: 2021년 3월-2022년



짚풀, 4컷

THU WED
24.5.2 - 7.31

짚과 풀은 인류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함께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흔하게 사용된 재료입니다. 우리 선조들 역사의 식·주에 필요한 도구부터 일생의례, 신앙, 생업, 놀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짚풀을 활용하였습니다.

농경지역에서는 알곡을 털어낸 벧짚을 주로 사용하고, 서산간지역에서는 그 지역 고유의 풀을 채취하고 가공하여 쓰임에 맞는 도구를 제작하였습니다.

〈짚풀, 4컷〉은 과거 도구 제작에 사용되었던 수많은 짚풀 재료 가운데 12종을 선별하였습니다. 이 12종의 재료들을 채취·가공한 후 엮고 삼는 과정을 거쳐 완성한 도구와 짚풀을 대체한 현대의 도구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짚풀 문화의 형성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도구의 발전과 사용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변화할 '미래'의 삶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Rice

벼

논이나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로 높이는 1m 정도이다. 이삭의 감질을 벗겨낸 것을 쌀, 이삭을 떨어진 줄기와 잎을 말린 것을 벃짚이라 한다. 벃짚은 흡수성과 보온성이 뛰어나 생활용구의 주재료로 쓰였고 사료나 거름으로도 활용되었다.



감줄

백종과 감종에 주로 사용. 호박의 밑자리에 달린 고구마 뿌리를 줄을 묶어 백색의 감줄을 짠다.



꽃공

짚장난. 거름용 추를 만든 뒤 인형이나 장난감의 공을 만들거나 꽃 장식을 하여 추를 장식하여 놀이하는 놀이이다.



고운신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수제 신을 만들어 판매하는 장인이, 벃짚 장단을 통해 다시 한 번의 재탄생을 맞았다.



지게

최근 지역 문화에 농경문화의 기원을 탐안하기 위해 만든 소구이다. 지게 형태를 같이 사용하는 농부의 생활을 통해 벃짚을 다시 한번 더 알리고자 하였다.



동이/패리

지게를 묶은 뒤 내 복을 담아 짠다. 짚장난은 지게, 지게를 묶은 뒤 복을 담아 짠다. 지게를 묶은 뒤 복을 담아 짠다. 지게를 묶은 뒤 복을 담아 짠다.



방상시탈

장난기나눔 및 복을 담아 짠다. 지게를 묶은 뒤 복을 담아 짠다. 지게를 묶은 뒤 복을 담아 짠다. 지게를 묶은 뒤 복을 담아 짠다.

Barley

보리

밭에서 기르는 작물로
높이 1m 정도이며 용도에
따라 식용, 맥주원료, 사료
등으로 활용된다.
보리의 줄기는 속이 비어있어
약하지만 매끄럽고 광택이
있어 염색 후 베갯모, 인두판을
장식하거나 여치집을 만드는데
쓰였다.



인두판

인두질을 위해 긴 나무판위에 솜을 두툼하게 올리고
형검으로 싸운 이 인두판은 염색한 보릿짚으로 뒷면을
꾸민 것이 특징이다.

Cattail

부들

전국적으로 습지나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로 높이는 1~2m 정도이다. 잎부들의 줄기 끝에는 갈색 향도그 모양의 열매가 달린다. 꽃이 피기 전 6~7월에 잘라내어 건조 후 재료로 사용된다. 줄기 내부가 스펀지처럼 폭신하게 되어있어 주로 방석, 지리, 잠신, 피리, 부채 등을 만들었다.



부들부채

부챗살 없이 부채면을 엮고 묶어서 만든 부들부채로 흔한 재료로 만들어져 망가질 염려 없이 쓸 수 있어서 주로 농민들이 사용하였다.

Cocculus

댕댕이 덩굴

산기슭 언저리나 덩굴, 들판에서
자리며 길이 3m 정도의
덩굴식물이다. 채취 후 덩굴을
중금계 감이 끓는 물에 삶아
간조시킨 뒤 바꾸니, 모자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



국립생물자원관 사진제공



정동별립

제주도의 농부나 목동이 비나 햇빛을 막기 위해
착용하던 모자이다. '정동'은 댕댕이덩굴을, '별립'은
방거지를 뜻하는 제주 방언이다.

Sedge

왕골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해 온 식물로 높이 2m
까지 자란다. 수확한 왕골의
줄기의 단면은 삼각형이며
이를 가늘게 쪼개어 말린 후
자리, 방석, 밭, 바구니, 망태
등을 만들게 된다.



저자망태

주로 부녀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갈 때에 들고 다니는 시장바구니이다. 왕골을 가늘게 쪼아서 다양한 엮음으로 만들었다.

Willow

버들

습기가 있는 냇가나 산기슭, 계곡에서 자라는 낙엽관목으로 높이는 2-3m정도이다. 봄에 채취한 버들의 줄기는 껍질을 벗겨낸 후 말렸다가 사용한다. 주로 키버들을 사용하는데 긴 줄기로는 키를 만들고, 짧은 줄기로는 동고리를 만듦으로 '고리버들'이라고도 불린다.



동고리

음식, 옷감, 책등을 담아 보관할 때 사용하는 것을 '동고리'라고 한다. 버들가지와 소나무로 엮는데 이때 칩 줄기로 끈처럼 단단하게 조여 마무리하게 된다.

Bushclover

싸리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식물로
잎이 다 떨어진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줄기를 채취한다.
감잡질을 벗겨내어 채반,
바구니, 다월개 등을 만들었다.
또한 벗겨낸 감잡은 짙은 갈색을
띠고있어 뱃침공예를 할 때
무늬를 넣는 데에 쓰였다.



채반

낮고 둥글넓적하게 엮어 만든 그릇으로 나무를 말리거나
씻은 채소의 물기를 뺄 때, 기름에 부친 전을 식힐 때
사용하였다.

Reed

갈대

연못이나 강가, 습지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식물로 굵은 뿌리줄기가 땅 속으로 깊게 뻗어나간다. 줄기는 2~3m 높이로 자라며 8-9월에 갈색의 꽃이 피는데 빗자루의 재료로 쓰려면 꽃이 완전히 피기 전인 8월 초에 수확한다. 갈대로는 싯갓, 싯자리, 마구니 등을 만들었다.



빗자루

빗자루는 쓰임에 따라 방비, 마당비, 부엌비 등으로 구분된다. 갈대의 꽃 부분으로 만든 빗자루는 아주 부드러워 방 안을 청소하는 방벼로 사용되었다.

Hemp 삼

중양아시아가 원산지인 1년생
초본으로 암수 그루가 다르다.
고대부터 섬유식물로
재배하였고 줄기는 끈기
자라며 높이 2-3m이다.
줄기 껍질에서 섬유를 얻는데
삼베, 그을, 미투리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미투리

삼을 가늘게 꼬아 만든 고급 짚신으로 바닥을 4널로 삼는
짚신과 달리, 미투리는 바닥을 6널로 하고 50-60개의
층을 세워 보다 정교하게 만들었다.

Bamboo

대나무

우리나라에는 14종류의 대나무가 자라는데 줄기의 높이가 20-30m에 이르며 원통형으로 속이 비어있다. 주로 공예용으로 사용되는 왕대는 3년생을 사용하는데 가늘게 쪼갠 대요리를 묶어 바구니를 만들었다.



죽피바구니

죽순 껍질인 죽피로 만든 바구니로 알록달록하게 염색하여 무늬를 넣었다.

Kudzu

췑

전국 각지의 산과 들에서 흔히 자라는 덩굴식물이다. 췑의 줄기는 주로 삼태기, 바구니를 짜거나 키, 동고리를 만들 때 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속껍질을 벗겨낸 섬유는 '췑올치'라고 하는데 가늘게 새끼를 꼬아 사용하였다.



베솔

옷감을 짜려면 준비된 날실을 영키지 않도록 고르게 정리하는 '베매기' 과정을 거치는데 베솔을 사용하여 길게 걸쳐 놓은 날실에 풀이 끌고루 문질러 주었다.

New Zealand hemp

신서란

뉴질랜드가 원산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서 자란다. 잎이 1~4m정도로 자라는데 채취 후 가늘게 쪼개어 건조시킨 섬유는 질기고 탄력이 있으며 소금기에 강하고 튼튼하여 주로 선박의 밧줄, 깔개, 비구니, 종이, 생활용구의 재료로 많이 쓰였다.



밧줄

제주에서는 구하기 힘든 벗짚이 아닌 신서란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잎을 가늘게 자른 후 말리고 두드리며 손으로 끈 줄로 테왁 망사리, 배의 밧줄 등으로 사용하였다.

[2024 박물관 미술관 주간] 짚풀, 4컷

발행처 짚풀생활사박물관

발행일 2024. 5. 2

발행인 정승혜

전시기획 이정아

실무 민지은, 김민지, 이기현

전화 02-743-8787~8

※ 본 자료집은 「2024 박물관 미술관 주간」 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저작권자(짚풀생활사박물관)의 허락 없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